

만남

02

2021

통권 564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전세대가 함께 드린 2020 온라인 성탄축하예배

차분함과 경건함 속에 보낸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2020 성탄축하예배가 작년 12월 25일(금) 1부에서 3부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다.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속에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성탄절을 맞아 차분함과 경건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했다.

김운성 목사는 마태복음 21:12~17을 본문으로 ‘성전의 성탄절’이라는 설교를 통해 “성탄의 핵심은 예수님의 오심과 영접”이라며 “성탄의 일상화를 통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전세대와 함께 하는 성탄예배로 드린 2부와 3부 예배에서는 사전에 신청을 마친 주일학교 학생의 가족들을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하여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며, 대림절 기간 중 진행 된 ‘#위로챌린지’ 영상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간구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은혜의 무게 **김운성**

특집 04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갑시다 **오현택**
06 내 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윤예지**
08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차영수**

다음 세대 11 온라인 사역·성경적 가정의 새로운 가능성 **이영호**
14 AI 시대, 더 절실한 ‘기독교 정신’ **김정훈**
18 ‘다시(RE)’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형근**
20 ‘성령의 뉴 프런티어’가 되겠습니다 **선종현**

땅끝까지 이르러 22 3남선교회가 됩니다 **김신희**
25 지혜를 간구하는 3여전도회 **정해욱**
28 코로나19를 넘어 세계 선교를 배우다 **장은아**
30 스빠시바,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 **이요한**

영락의 울타리 32 일상생활 속의 영성수련 **권혁일**
35 안수현 형제 15주기 추모예배
36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신중건**
38 시어머님 기도 덕분에 봉사의 즐거움 알았습니다 **박순복**
40 영락뉴스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류중혁**

야곱의 우물가 42 첫 시간을 드리는 믿음 훈련은 가정에서 **양해경**
44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윤남이**

문화광장 46 수난곡(Passion)과 찬송 ‘오 거룩하신 주님’ **박신화**
49 빛 색깔 공기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박지운**
50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고윤숙**

교회소식 51 2021년 신임교역자 프로필
52 2021년 목회 분담표
54 2021년 제직부서 부차장
58 신년예배와 신년기도회 열려 외
59 2월 목회력
60 편집장 레터

표지설명



눈과 얼음을 뚫고 피어난 복수초(福壽草). 우리
에게 다가올 채비를 하는 봄의 서두름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복수초의 우리말 이름은 얼음새꽃
입니다.

사진 김성혜 은퇴권사(영락포토)

은혜의 무게

김 운 성 위임목사



우리는 큰 은혜를 갈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소위 ‘셋째 하늘의 체험’이나 에스겔에게 열렸던 하늘이 부럽지 않으세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기에 앞서서 생각할 문제는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탈진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3절을 보면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또 10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힘과 의욕이 넘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집니다.

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눈과 같습니다. 눈이란 정말 가벼운 것입니다. 새털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계속 내려 쌓여 10, 20, 30cm가 되면 지붕이 내려앉고 굽은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눈사태에 파묻히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눈의 무게입니다. 눈은 가장 가벼운 것이지만, 정말 무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가볍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내리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내리면 나중에는 은혜에 깔려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깊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속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브리엘에게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낳는 일로 인해 번뇌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는 백 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나중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때문에 번뇌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라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런 이들이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는 그 은혜에 깔려 죽게 됩니다. 욕망도 죽고, 교만도 죽고, 고집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그만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받은 은혜도 반납하시겠습니까? 결정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 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그만 받고 내 식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편안하게 믿고, 적당하게 흥내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평생 교회에 다녀도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없으며,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연약해지고 영향력을 상실하는 원인은 값싼 은혜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세례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 생활과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존재가 밑바닥부터 새로워지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지 않으시렵니까?

2월은 졸업을 하고, 입학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싶으십니까?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성적 중심의 교육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이라 여겨집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를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말씀대로 365’를 통해, 깊은 기도를 통해, 인생이 변하는 은혜를 얻길 기도합니다. **만남**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갑시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졸업에 따른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은 짜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설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똑같은 일과를 하며, 많은 경우 대학 진학이라는 동일 목표를 향해 매진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로의 목표는 달라지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합니다. 이제는 모두 각자의 다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품었던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학생 대부분이 자신에 대한 평가 없이

대다수가 좋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학생들에게 시간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한 사람들이 비교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활용 방법의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시간의 구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에 해야 할 일, 전반기에 할 일, 1분기에 할 일, 이번 달에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오늘 할 일 등을 구분해서 정하고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성공한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견지한 이들은 주어진 일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주일성수와 봉사에 우선 순위를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와 달리 사회에서는 노력한다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최선을 다한 만큼 더욱더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다. 세상은 왜 이래? 공평하지 않아”라며 탄식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는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나를 위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주관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고, 주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주일성수와 함

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며, 새로운 변화와 성령의 능력을 불어 넣어줄 목사님의 말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마련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쁜 일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면 주일성수와 주님 일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잠언 16: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언 16:3)’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모든 학생의 앞길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오현택 안수집사
서초교구
고등부 부감

내 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24살. 졸업. 취직. 앞으로의 계획. 나의 미래.

이 단어들이 마냥 설레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기대하고 계획했던 대학생활도 잘 마무리 했고 대학생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중한 시간들을 감사히 보냈습니다. 20살이 영원할 것 같았고 대학생활이 조금은 천천히 흐르길 바랐습니다. 대학교 입학만을 목표로 하며 살던 고등학생 때는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을 하면 원하는 일은 모든지 할 수 있고 마음껏 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제 미래가 평탄할거라는 굳은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과는 달리 대학을 입학하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용기와 담대함이 부족해지는 못난 저를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았고 미래에 저를 쓰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도 굳건했습니다. 빨리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사회인이 되고 싶었고 제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온전한 제 생각이고 욕심이였기에 저는 점점 미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나약해졌고 제 능력만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저를 주님께서 아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친구의 입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 구하고 매달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어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제 아버지였고 아빠였습니다. 자꾸만 숨으려는 저를 찾아오셨고 안아주셨습니다. 아주 많이 위로해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지야,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건 너를 연단하기 위함이란다. 세상이 아닌 나를 바라보렴. 내가 너의 길을 다 계획했단다. 왜 두려워하니?”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주님을 더욱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노트를 작성하며 혼자 고요히 주님을 느낄 때 주님은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제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인내와 내려놓음의 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시기를 인내하고 나를 단련하며, 제 욕심을 내려놓고 제 생각을 버리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저를 기대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지금의 저에게 찬양으로 또 위로해줍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저는 왜 그리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각자의 자리를 정해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4살. 졸업. 취직. 앞으로의 계획. 나의 미래. 이 단어들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제 꿈을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계획한 것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취업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계획을 세운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게 보여주실 주님의 일하심과 저를 통해 행하실 일이 매우 기대되고 설렙니다.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영락교회에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만큼 힘들고 괴로움도 배가 되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진 사회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당당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뺨은 하나님이 다! 우리의 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부족한 제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글을 쓰며 또 한 번 주님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남**



윤예지 성도
중구·용산교구
대학부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신의를 보여라 - 신실한 크리스천

“뉴욕-서울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 드릴 테니, 다가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인터뷰하면 좋겠습니다.” “저에 관한 관심은 감사하지만,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회사를 옮기는 것은 온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눈이 휘날리는 새벽 1시, 맨해튼과 뉴저지 사이를 흐르는 허드슨강을 따라 운전하고 집으로 가던 중 깜빡 졸다 깬 경험이 있었는데, 운전 중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무언가 대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이다. 1997년 12월, 당시 한국의 부도 위기가 눈앞에 있었다. 삼성전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당시의 나는 만기가 다가오는 차입금의 연장업무로 두 달째

계속된 야근에 졸음이 쏟아지고 업무에 지쳐가고 있었다.

뉴욕 생활의 낮에는 미국 현지 은행 여신 담당자들과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서류를 씨름하며 만들어야 했고, 저녁에는 한국시간으로 아침이므로 서울 본사의 자금부서와 그룹 재무팀에 자금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상이었다.

1년 후 자금 상황이 정상화되어 갈 무렵, 주재원 가족끼리 모여서 영화 <타이타닉>을 봤다. 바이올리니스트 월리스 하틀리가 우왕좌왕 혼돈에 빠진 승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 갑판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연주하면서 배와 함께 가라앉는 장면이 나오자 상사가 “차영수 같다. 작년에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을 때, 업무 때문에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다 시피 하며, 회사를 지킨 모습과 같지 않느냐?”라고 인정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 인내하는 크리스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주말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배를 이유로 주일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핑계로 삼는 것 같아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때부터 직장에서의 모든 언행은 개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생활과 직장생활의 갈등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헤쳐나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갈등을 초래하고 비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기 십상이다.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도 무엇과 바꿀 수 없지만, 삶 속에서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를 예로 들면, 신앙인으로서 거절하는 경우 직장 동료들과 친밀해지기 어렵게 된다. 나의 경우는 워낙 주량이 적어서 잘 마시지 못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마시지 않느냐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지내왔다. 특히 알코올을 좋아하는 상사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관찮다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곤 했다.

신앙인으로서의 진실을 붙잡고 나가려 다짐하니, 업무에 있어서 당면한 질책을 받지 않으려 사실을 덮거나, 왜곡할 수가 없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순간에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잠잠히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그렇게 세월이 쌓이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보고를 할 때 “너는 교회 다니니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라고 상사로부터 신뢰의 평가를 받는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했다. 세월이 흐른 뒤, 직장 상사들이 “차영수에게 술 주지 마라, 그 술 나 주라”고 말할 때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실감하곤 했다. 삼성생명 자산운용 본부장으로 지낼 때, 부서 직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저도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데, 본부장님을 보고 위안과 격려가 된다”고 말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특별나게 행하는 것도 없었지만,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주변의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다.

인도하심은 다 계획이 있다

-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

2012년 직장에서 입지가 불안해지면서 미국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통보받고 마음이 울적했다. 임원의 해외 연수는 일종의 유배와 같은 개념이다. 현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있는 상사에게 인사하러 찾아가니, “마음 편하게 연수를 다녀오나라, 회사 비용으로 가는 연수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니? 그러다가 혹시 다시 복귀하면 더욱 좋고” 하며 위로해주었다.



큰아들이 유학 중이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50이 넘은 나이에 20대 젊은 학생들과 UCLA 어학당에 다니며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다. 사실 미국에서 MBA를 했고, 1996년부터 5년간 미국 주재원도 했지만,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어학연수로 영어에 조금 더 친숙해지게 되었다.

2018년, 35년간 근무했던 삼성을 떠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현재 3년째 근무하며 영어에 파묻혀 지내면서 8년 전 어학연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다. 당시에 어학연수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 기업인 현재의 직장에 지원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선한 영향력 - 향기를 발하는 크리스천

인생 걸음걸음의 선택과 결정은 정답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며 선택지를 고르고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긴다.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나의 분깃이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장래에 다가오는 일을 맞이하는 것이 나의 도리일 것이다. 나는 1980년 5월 영락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부 시절 네비게이트션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미션에 인생의 향로를 실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용기가 없어, 분명한 부르심이 없으면 하지 않겠노라고 마음먹고, 직장으로 발길을 내디뎠는데, 그 당시 올바르게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지금도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싶다.

후배들에게 충고하자면, 직장이라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호하심에 의지하라.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은은하게 발하는 우리 영락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후배들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다. **만남**



차영수 집사
서초교구
前 예산위원회

온라인 사역·성경적 가정의 새로운 가능성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는 지나갔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락교회 교육 부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학교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언택트(Untact)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크고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인 동시에 많은 숙제를 맞이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가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력 아래 놓여있

는 아이들을 기존의 예배를 통해 긍정적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세상의 미디어들을 능가하여 아이들이 기대하고 좋아할 만한 온라인 예배와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도전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적이면 아군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코로나는 현 상황에서 이겨내기 힘든 적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아군 삼아서 발전할 방향을 찾아가



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영락교회 교회학 교의 역사에 유의미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라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요셉이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사태를 재앙의 관점이 아닌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편안하게 느껴 왔던 익숙함을 벗어나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전 지구적 재난 속에서 교회학교는 빠르게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변화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락교회 교육부도 대응해 왔습니다. 교육부 모든 부서 온라인 예배 시스템 장비 구축, 온라인 성경공부, 온라인 성경학교, 온라인 수련회, 온라인 심방, 119 대작전, 한 친구 묵상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부할 수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도록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도전은 교회만의 노력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도전할 수밖에 없고, 변화해야만 하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연이 회복되었듯, 가정 또한 성경적 가정으로 회복되는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정의 역할 변화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큰 양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 안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자녀의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모가 전적으로 교회에 신앙교육을 위탁했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부모와 교회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한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아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학교 공부뿐 아니라 성경적 자기 주도 학습을 훈련해야 하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점검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아이들 중심 사역에서 부모 연합사역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생긴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 영락의 다음 세

대가 부모와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는 2021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기회는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 속 미디어에서는 기독교 콘텐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미디어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기독교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해야만 하며, 이로 인해 미디어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트위터 등 다양한 SNS에 예배와 기독교 콘텐츠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강의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오픈한 것처럼, 교인들을 대상으로만 열렸던 모든 강의와 말씀들이 세상을 향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연결해 줄 기독교 연관 콘텐츠가 없었던 이전과 달리 수많은 기독교 관련 미디어들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교회에서 만든 예배 영상, 찬양 영상을 보고 들으며 아이들의 신앙은 성장할 것입니다. TV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각종 통신사 TV 서비스처럼, 이제 가정에서 TV와 휴대폰으로 목회자를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영락교회 교육부의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들은 교회학교가 없는 수많은 미자립 교회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며,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지역 구석구석,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 현장까지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적으로 여겼던 세상 속 미디어가 전도의 통로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인류 최대의 위기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역으로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 때입니다. 2021 영락교회 교회학교 교육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남**



이영호 목사
중등부

AI 시대, 더 절실한 ‘기독교 정신’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그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과거의 경제공식이나 산업공식도 빠르게 깨지고 있으며 코로나가 가속한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증기기관 기반의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지금은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주목하라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과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과 초고속 통신망(5G), 스마트시티 등을 통해 모든 세상과 연결, 생명 한계에 도전 그리고 드론, 3D 프린터 등 미래 산업으로 대표된다.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4차 산업혁명은 작년 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맥도널드 등의 식당에 급속하게 등장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그리고 2016년 3월 우리를 놀라게 한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탄생은 언택트(Untact) 시대와 맞물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과 혁신으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와 연결된 뉴노멀은 주지하듯이 급속한 디지털화, 국가 및 사회 간 폐쇄

적 거버넌스, 그리고 거리두기 문화의 강화를 통한 온라인과 SNS의 활용 증대 등으로 나타난다. 뉴노멀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중요 구심점이 되었다, 강남순 교수(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와 타자 간, 내가 사는 지역과 다른 세계 간, 또한 나와 자연과의 ‘상호의 존적 존재’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T 학문을 전공하는 전공자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도전이자 큰 기회로 생각한다. 그래서 IT학과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며 면학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의문은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의 정체성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계류가 인류를 대신할 것인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초지능을 갖게 될 경우 우리 인간



의 가치와 생존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산업현장은 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급변하는 데 반해,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은 과거보다 어려워진 취업 준비를 위해 스펙 쌓기와 아르바이트에 매몰되어 개성과 인성이 황폐화하고 그리고 창의력 향상도 우려할 만큼 저조해지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 젊은이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의 경기침체로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암울한 형편이기에 더더욱 젊은이들의 고민은 깊다고 할 수 있다.

소통·협업·비판적 사고력 기워야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가 가속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나 역량은 무엇일까?

많이 논의되는 학문적 융합과 창의력 향상 노력이면 족한 것일까? 작년에 미국 코넬대의 마사 폴락 총장이 신문에 인터뷰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인문학에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사고 방식 이해, 다문화 의식, 타인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 및 협업하는 능력,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쓰는 능력과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가속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와 SNS 환경을 잘 이해하고 디지털과 AI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

우 중요한 역량이다. 2년 전, 기독교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회와 역할’ 세미나에서 나온 결론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할 역량은 ‘세상을 읽는 힘, 사물에 관한 관심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이었다.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의 경쟁력은 컴퓨터의 지능과 빅데이터로 채워질 수 없는 기독교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이웃과 자연에 관한 관심, 사랑과 같은 인간 본연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

AI 시대를 맞아 기독교 사역에도 변화의 바람이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주일날 교회 공간 중심의 신앙 사역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교회의 119운동과 한친구운동과 같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다양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AI 기반의 사이버교회의 탄생과 AI 기반의 기독교 사역(설교, QT, 기도 등)도 디지털 온라인 사역과 더불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한 구절이 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취업과 꿈을 못 이루는

젊은이들이 많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일에배뿐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의 다양한 온라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며 깊은 데로 가는 영락의 젊은이들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구체적 제언

현재, 진로 설정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먼저 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역량과 재능,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돌이켜 보며 본인이 도전 가능한 진로를 찾기를 바란다.
-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진로를 생각해서는 안 되며 직업군으로서의 진로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미국인은 평생 7.2개의 직업을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10년간 평균 4회 이직한다고 한다. 가령, 특정 과목의 교사라는 직업보다는 가르치는 일이라는 직무로 접근해야 한다. 즉, 본인의 희망 진로를 좀 더 광의의 융합 직무로 확장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제는 비대면, 원격, 스마트기기 시대이다, 이공계 분야가 아니어도 IT 기술과 친해지고 IT 친화형 창의·융합 직군을 염두에 두면서 해당 실무교육과 경험을 쌓고 준비해야 한다. 교회 목회에도 IT 기술이 이제는 필수이듯이 더 더욱 우리 젊은이들은 IT 친화형 인재가 되어야만 한다.

- 최근 들어 기업과 사회는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희망 분야가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 보면서 경험과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도구(Tool), 기술(Skill), 마인드(Mind)가 변해야 한다는 명언이 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출전한 육상선수가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운동화나 운동복, 그리고 운동기술도 함께 변해야만 기록이 경신된다는 얘기이다. 과거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뿐 아니라 본인의 꿈을 이룰 도구와 기술도 새롭게 선택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 위의 제언들을 본인에게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희망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멘토링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다섯 명의 전문가 멘토링과 최소 다섯 권의 해당 분야 전문 서적 등을 읽고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한다면 크게 도움 될 것이다.

교회 차원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필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영락교회 젊은이들이 지금의 어려운 세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젊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영성 교육뿐 아니라 교회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등 구체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러한 코로나와 AI 시대에도 우리 영락의 젊은이들이 인공지능이 담지 못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덕목을 깊이 키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하며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선도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위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영락의 젊은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만남



김정훈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교육부 차장
신한대 전자공학전공 교수

‘다시(RE:)’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06대 대학부 학생회. 비대면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다시’ 대학부 공동체를 세운다는 소망을 담아 ‘RE:’로 이름 붙였다.

대학부 학생회장으로 섬기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11)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대학부의 주인이 되셔서 대학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어떠한 노력이 대학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사 대학부 벗님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학생회장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기

에 하나님을 대학부의 주인으로 모시고 학생회장으로 임기를 다하고자 합니다.

106대 대학부 학생회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다시’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대학부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106대 대학부 학생회의 이름을 ‘RE.’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부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세워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들을 통해 앞으로 학생회가 소망하며 나아갈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를 어둡게만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여전히 위중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대학부에서의 특별예배도, 수련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학부 학생회가 대학부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대학부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준비하는 학생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며, 학생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학생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학생회가 아무리 대학부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대학부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십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대학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대학부의 주인이 되시고, 대학부를 향해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대학부를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만남**



이형근 성도
대학부 학생회장

‘성령의 뉴 프런티어’가 되겠습니다

2021년 영락교회 청년부 청년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을 모르는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시절 친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15살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때문인지 제 마음은 서서히 녹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교회 가는 날로 마음에 새겨졌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저 친구들이 하나까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성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15살 그대로였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무엇을 위해 다니는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그런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살, 21살, 22살... 나이를 따르는 육체에 비해 영적인 성장은 더뎠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내버

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 청년부 하기전 교봉사를 통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제게 찾아오신 주님은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던 성경 말씀들이 마음으로 이해되는 신기한 경험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루했던 찬양이 제 몸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은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불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드셨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 힘을 모아야 하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년부는 코로나 감염병 이전부터 청년 일자리, 결혼, 출산, 주거비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회원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서로 결속하며 얼굴을 맞대는 활동들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활동들이 일시에 중단되면서 큰 어려움에 맞닥뜨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환경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는 청년들도 속출하는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부 활동은

적잖이 위축되었습니다.

청년부의 2021년은 새롭게 도전하는 해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인 ‘눈을 들어 받을 보라’에 발맞춰, ‘뉴 프런티어가 돼라’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발에서 소명을 이뤄가는 모습을 그리며 믿음의 열정을 다시 지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청년들은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인데, 익숙한 온라인 환경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타성에 젖은 예배를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실제 예배당 예배와 동일 시간에 복장을 갖추서 드려야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는 온라인 예배에 점점 나태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느끼던 기쁨과 감격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리더들이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리더가 회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먼저 연락하고, 활발히 의사소통하면서 예배 회복과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룹별 사역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담은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된 그룹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하기선교에 대하여 새롭게 정신무장할 시기라고 봅니다. 매

년 정례적으로 하는 가장 큰 행사이지만, 왜 우리가 하기선교를 해야 하는지, 정작 그 의미를 모르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기선교를 준비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에 하기선교 대상 지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뿐 아니라 하기선교의 의의와 연혁, 지금까지의 성과, 하기선교를 통해 일어난 변화 등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고, 또 현장에 갈 수나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하기선교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하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인원이 한 지역에 집중하는 기존의 하기선교 방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좋은 방안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율타리가 여전히 높지만, 가장 뜨겁게 불타올라야 할 청년들이 더는 움츠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청년부 리더들이 일어서고, 모든 영락의 청년들이 날아올라, 교회 전체에 활기를 줄 수 있도록 모든 성도 분께서 지켜보시며 기도로써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만남**



선종현 성도
청년부 청년회장

인터넷 해외선교·쪽방촌 봉사... 3남선교회가 뚝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락모자원을 지원했다

3남선교회는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43~52세 (1969~78년생) 남성 성도로 이뤄진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공동체, 여호와를 기뻐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공동체를 지향하며, 매 주일 찬양과 말씀 나눔과 교제를 통해 신앙적 삶을 회복하고 나아가 영락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길 잃은 나그네와 고아·과부를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쪽방촌(등대교회), 영락모자원, 영락보린원을 후원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으로써 국내·해외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재정, 예배 참여)과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인 북한선교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남선교회의 주일 모임과 여러 사역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 모임을 통해 예배공동체로서의 찬양과 말씀, 기도로써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던 시간이 강제로 방학을 맞

이하게 되었고,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쉼 없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진행했던 인터넷 해외선교도 강제 휴지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매우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40~50대 주의 백성이 추수되는 놀라운 부흥의 기쁨이 영락교회와 3남선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3남선교회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은 크게 인터넷 해외선교, 미자립교회 지원선교(성도 50인 이하), 북한선교, 사회복지선교, 해외 파송선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해외선교는 선교사님들께 **쉽**과 **교육** 그

리고 충전의 기회를 드린다는 모토로 1회 1999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지난해 21회 M국까지 21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선교사님 지원에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해외선교라면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가 선교지에 직접 가서 그곳의 교회를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남선교회 선배님들은 “선교사님께 섬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사역에 지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인터넷 해외선교를 기획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선교사님들께서 오랜 사역에 지친 몸과 마음에 쉼과 회복의 시간을 드립니다. 가급적 최고의 교육 장소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공간(호텔)으로 초대하여 3박 4일의 일정으로 의료서비스, 아·미용 서비스(파마, 커트, 네일아트), 선교사님 자녀 돌봄, 모바일교육 및 문서작성과 동영상 제작에 관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블릿과 노트북 컴퓨터를 선교사님들께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해외선교를 인도로 갔었던

경험이 있는데, 선교사역 30년 만에 처음 파마를 하게 되어 정말 행복했다며 눈물을 보이던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나 가지는 권리마저 포기하고 먼 타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이 “작은 위로가 나의 전부를 위로하셨다”라며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 확신했습니다.

2021년 22차 인터넷 해외선교는 코로나19로 재입국이 취소되어 사역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과 안식년으로 귀국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아픔을 느끼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입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많은 교회를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뜻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교회를



인터넷 해외선교는 선교사들에게 교육과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018년 요르단)

섬기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등대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선교로써 모자원, 보린원, 쪽방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락모자원을 해마다 방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영락보린원은 매주 토요일 학습지도로 방문합니다. 쪽방촌(등대교회)에도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북한선교입니다.

북·중 접경지역의 처소교회 지원, 자유인 학생 장학금지원(한꿈학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파송 선교사(전문인 선교사 포함) 지원입니다

북인도, 요르단, 일본 오사카, 미얀마, 독일, 네 팔, 잠비아 7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께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묵시(默示)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29:18)

항상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은 삶이 나태해지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이 나태해지지도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하늘에 쌓아 시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숨겨진 귀한 보석을 마음에 담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김신희 집사
인천교구
제3남선교회장

▶ 김운성 위임목사 주일설교 방송



▶ TV

CTS기독교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3시
(직전 주일 예배 방영) www.cts.tv

▶ 라디오

기독교방송(CBS 표준FM) <영락의 강단> 주일 오전 7시
서울 표준 FM 98.1MHz / www.cbs.co.kr

극동방송(서울) 오늘의 양식 주일 오전 6시30분
서울 표준 FM 106.9MHz / www.febc.net

* 스마트폰에서는 앱스토어(아이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애플리케이션(CBS레인보우, 극동방송라디오)을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간구하는 3여전도회



CTS 두란노성경교실 김운성 목사님의 <요나서 강해>를 방청했다(2019년 3월)

살롬~

저는 올해부터 3여전도회 중앙회 회장으로 섬기게 된 정해옥 권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회장이라는 과분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쓰임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보잘 것 없는 저에게 어찌 이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며 불순종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동역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대한 도움으로 용기 내어 회장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회장님으로, 실행위원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해외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

서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3여전도회는 국내·해외선교가 주된 목적으로서 복음전파의 열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전도회의 목적을 명기한 이유는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여전도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실제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의 영락교회 특성상, 어릴 적부터 할머니, 어머니가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헌신하셨던 모습을 보며 성장한 회원들이 많으셔서 여전도회 사역을 삶의 일부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에게는 굳이 여전도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새신자이거나 부모님 세대가



선교대회 중 열렸던
선교바자회에서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께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여전도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3여전도회 회원 배가를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 행사 및 여전도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기에 신입회원의 가입이 전무했으며, 올해는 그동안 3여전도회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대거 2여전도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3여전도회에 유입될 젊은 연령층과 새신자에게 3여전도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선교비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회원 배가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기존회원에게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신앙의 굳은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아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었던 지난해 3여전도회는 인터넷 화상 접속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해

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2020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마비되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치 삶 속에서 한 해가 증발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해 속절없이 상반기를 보내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줌으로 실행위원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낯선 인터넷 화상 접속으로 모이는 데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각 지회에서든 지회장님들의 노고로 줌으로 지회 모임을 갖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는 맹위를 떨치며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모이기는 커녕 바이러스 전파의 진원지로서 사회의 공격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19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인터넷 비대면 화상

접속이라는 도구는 힘써 모이기를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어쩌면 유일한 양방향 소통창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좀 더 인터넷 환경에 친숙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3여전도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화상 접속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선교사님과의 만남 및 소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성의 문제나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나, 인터넷 화상을 통해 주님께서 선교지에 부어주시는 역사와 은혜의 감동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혜를 모아 비대면으로나마 모이기에 더욱 힘쓸 것이며, 모질도록 끈질긴 코로나19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3여전도회의 열정을 결코 무너트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낮고 겸손한 자

세로 중앙회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리더보다는 보조하는 자로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으며, 지금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버거움과 중압감이 저를 에워싸고 있지만, 저만이 할 수 있는 서번트 리더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3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 16:8) **만남**



정해옥 권사
강남교구
제3여전도회장

2021 선교회 자치회장 명단

- 제1남선교회 회장 안태운 장로
- 제2남선교회 회장 임우섭 장로
- 제3남선교회 회장 김신희 집사
- 제4남선교회 회장 유호근 집사

- 부부선교회 회장 김지훈 집사 (유임)

- 제1여전도회 회장 구성숙 권사 (유임)
- 제2여전도회 회장 강신재 권사 (유임)
- 제3여전도회 회장 정해옥 권사
- 제4여전도회 회장 유정은 집사

- 청년선교회 회장 황성수 집사 (유임)

코로나19를 넘어 세계 선교를 배우다

2020년 3월 진행예정이던 영락선교훈련학교(YMTS) 1단계 과정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미뤄지는 개강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다행히 온라인 강의가 허락되어, 2020년 9월 차동혁 선교전담 목사님을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개강예배를 드리고 훈련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영락선교훈련학교는 ‘영락선교세계관’과 ‘선교 현장영어’ 강좌로 구성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영락세계선교관 강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코로나 시대의 영락선교세계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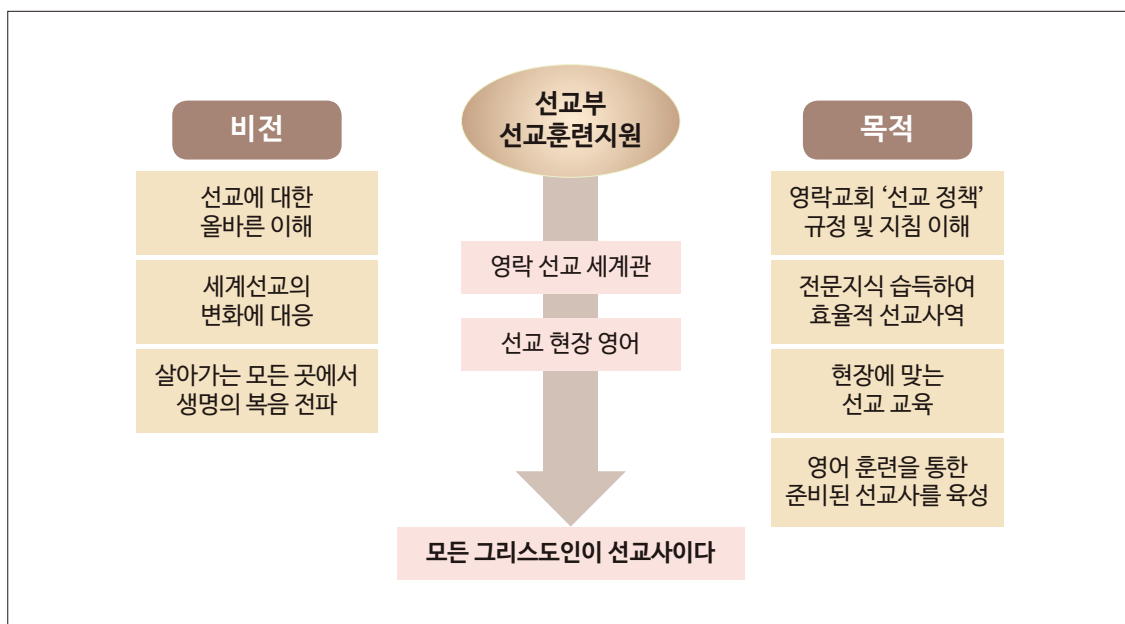
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락선교세계관은 1년 과정으로 1단계 ‘선교사 기초양성과정’과 2단계 ‘선교사 양성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세계선교대학 수료증을 발급받는데, 이는 단기선교사로 나갈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수료증입니다.

1단계 과정은 선교학 개론, 세계선교의 역사, 선교와 문화, 기독교 세계관, 선교와 교회일치, 한국 교회의 선교역사, 선교의 성서적 기초, 영락교회 선교역사와 정책 등 13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난해 강좌에서는 수강을 신청하신(총 48명 신청에 29명 수료) 성도님들을 1조 중보기도선교팀,

■ 영락선교훈련학교 교육목표와 비전





2조 은퇴자선교팀, 3조 국내외국인선교팀, 4조 전문인선교팀, 5조 후원자선교팀 등 5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카톡방이나 밴드를 개설하여 강의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로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개강예배에서 차동혁 목사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특별명령은 복음 전파이며 이는 곧 선교”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강의에 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의 벽이 생길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는데, 오히려 각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이 움직이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생생히 듣고 역시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 사회개혁과 봉사를 구별하지 않는 ‘포괄적 구원에 선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항상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지상(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선교 명령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었으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령’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권능’은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증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영락 성도들’임을 확인하는 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라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도님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는데, 성도님들이 오히려 많이 신청하셨고, 강의 또한 끝물 같은 시간으로 주님께서 학기내내 인도하셨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강의 등이 정상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는 3월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영락선교훈련학교를 통해 암울한 이 시대에 주님이 보여주신 선교의 모범을 따라 복음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장은아 집사
서초교구
선교훈련학교

스빠시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역과 관련해 빠른 조치로 본보기가 된 영락교회와 다르게, 생명과 같은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구호 아래 방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예배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떠올려보고, 지중해 지역의 초기 교회와 사도들의 활동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이 교회의 존재 의미를 선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선교부 외국인 예배는 비록 소규모이고, 교회의 주변부 사역이지만 해외

선교 사역과 더불어 교회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사역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선교부 외국인 예배의 큰 열매 중 하나는 러시아어 예배일 것입니다. 러시아어 예배는 2020년에 15주년을 맞이한 만큼, 영락교회에서 나름 긴 역사를 가진 외국어 예배입니다. 많은 러시아인이 오가고, 권사님과 집사님 등 여러 봉사자가 헌신하신 맘자국과 손때가 묻어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현재는 매주 평균 10~15명의 성도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해외 선교지에서는 가장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규모의 모임입니다. 특히 러시아 분들의 거주지가 주로 인천과 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영락교회에 러시아어 예배가 있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러시아 성도들은 영락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비록 외국 분들이지만 영락교회의 역사도 접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서 영락교회가 차지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질문받으면 항상 자부심을 품고 영락교회에 다닌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특히, 통역기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전통이 깊은 본당 예배당에서 예전적 예배에 참석할 때 한국 교회 예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며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예배부는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러시아 성도들에게는 영락교회가 한국 생활에서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에서의 일거리가 줄자 많은 러시아 성도들이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지만, 전화 심방을 통해 그곳에서도 러시아 신앙 공동체를 찾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사실 영락교회에 오시는 러시아 성도들 가운데는 생전 처음 교회를 접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 혹은 현지 사역자가 세운 고향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는 마음만큼은 한국 성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 성도들이 영락교회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영락교회의 '신앙 비전 원칙' 중 하나인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협력으로 '에큐메니컬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핵심 신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성도들은 대부분 해외의 침례교 혹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러시아가 문화적으로 정교회이기 때문에 러시아 성도들의 신앙적 뿌리는 러시아의 1,000년의 정교회 기독교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회가 정식으로 러시아의 국교는 아니지만, '정교회 신앙이 러시아 문화다'라고 할 정도로 언어와 생활에 그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작은 예로, 러시아어로 '스빠시바'(감사합니다)의 어원은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를 의미하고, 일요일을 뜻하는 통상적인 러시아 표현이 '부활일'입니다.

영락교회가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에큐메니컬 정신 덕분에, 기독교 신앙 배경이 장로교가 아닌

러시아 성도들이 괴리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당 사역자로서 부서 안에 그러한 교파적, 문화적 차이를 완화하고, 한국 특유의 장로교 전통과 문화들을 이해시키고, 상호이해와 존중이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이 항상 매끄러웠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국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가지고 외국어 예배부에서 봉사하신 수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 덕분에, 문화적 차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그 간극을 좁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2016년 러시아어 예배를 처음 맡고 1년 반을 섬기다가 공군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결혼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러시아 성도들이 저를 잊지 않고 저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고, 전역 후 다시 신대원에 복학하며 사역지를 찾는 가운데, 러시아어 예배 담당 사역자 자리가 때마침 공석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21년에도 러시아어 예배에 교제와 사랑이 가득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이요한 전도사
러시아어 예배부

온라인으로 연결된 일상생활 속의 영성수련



영성수련이라고 하면,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떠올리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남한산성에 위치한 영락수련원은 그런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장소’입니다.

2014년 12월 영락수련원이 문을 연 뒤에 많은 분이 일상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남한산성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주말에는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봄·여름·가을·겨울 내내 영성수련과 가족수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영락수련원이 작년 2월 중순부터 매우 한적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포이메네스* 겨울 목회자 영성

수련’(2월 2~7일)을 끝으로 이후 예정된 모든 현장 수련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이미 전년도 12월 말에 각종 수련으로 빼곡하게 채워졌던 영락수련원 달력이 모두 비워졌습니다. 더불어 수련자들이 묵상하며 산책하던 영락수련원의 잔디밭과 묵상동산에도 사람들의 발자취가 사라지고, 까치들의 발자국과 담장 사이로 들어온 이웃집 개들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과로’했었던 영락수련원이 작년에는 휴식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수련원 문이 닫혀 있는 기간에도 수련원을 섬기는 이들은 매일의 성무일과(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를 지키며,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동안 돌보지 못하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퇴락한 부분을 고쳤

* ‘포이메네스’(ποιμένες)는 ‘목자들’ 또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영락수련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통해 ‘말씀묵상 수련’ 온라인 진행 매주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독서’ 영상, 매달 ‘수련원책방’에서 책 소개

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련자들을 기다리며 나무를 깎아 야외 벤치를 만들기도 하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무성하게 자라는 잔디를 깎고,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초여름과 가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제한된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성도님들과 함께 화요정기예배를 서너 달 정도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으로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수련원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온라인 수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영락수련원의 거룩한 공간이 주는 유익을 온라인으로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수련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고 부르는 온라인에 실제적인 영성수련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락수련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셔서 온라인 수련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고,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8월에 예정되었던 ‘포이메네스 여름 목회자 영성수련’을 ‘포이메네스 온라인 공개강좌와 대담’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시대의 목회’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15일에 실시했습니다. 보통 포이메네스 영성수련은 영락수련원에 모여서 3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수련이지만, 위

기 속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시급히 돕기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이후 CGN TV를 통해서 녹화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이것은 영성수련 형식이 아니라 강의와 대담 형식이었지만, 온라인 영성수련을 위한 기술적인 시험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온라인 영성수련은 ‘거룩한 독서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을(9월 17~19일)과 겨울(12월 11~20일),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독서수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회의나 강의 등에 사용하는 ‘줌(zoom)’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20명 안팎의 수련자들이 온라인 공간에 모여 같은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나눔과 영성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수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영락수련원에서, 수련자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의 양해를 얻어 가정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했으며, 어떤 분들은 고요한 공간을 찾아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곳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영성수련에 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련자 한 분 한 분 안에 심어 두신 거룩한 열망으로 인해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적인 영성수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깊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영성수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2020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원래 봄과 가을에 2박 3일씩 두 차례 실시하던 것이었는데, 올해는 사역 현장을 떠나지 않고서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목회 현실을 고려해서 지난 2020년 11월 30일에 하루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약 20여 분의 한국 교회 목회자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참석했는데, 특히 온라인 수련이어서 해외 한인교회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련이라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분이 다음에도 온라인 수련이 있으면 참석하겠다고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수련을 진행하면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깊이 실감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영락수련원의 공간과 자연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크지만, 사실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 은총의 본질이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돕는 수단들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넘어서서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해는 온라인 영성수련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원래 일 년에 네 번 실시하는 말씀묵상수련(예수님 생애묵상수련, 거룩한 독서수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환경이 열리면, 다시 영락수련원에서 대면으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최소한 올해 가을까지는 수련원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단체수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발견한 몇 가지 아쉬움을 보완해서 올해는 좀 더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수련원에 오시지 않

고서도 말씀묵상기도를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1월 말부터 매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독서’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락수련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주 영상과 함께 말씀묵상기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365’ 운동의 성경통독과 더불어 실천하시면, 말씀의 숲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면서 말씀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깊이 묵상하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는 봄부터 ‘수련원 책방’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매달 한 권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락수련원 본관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마르다장학회’에서 도서 기금을 마련해 주셔서 영성에 관한 좋은 책이 나올 때마다 사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책 중에 한 권씩 골라서 소개하고 발췌하여 읽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영락수련원 홈페이지나 영락수련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영락수련원’을 찾아 채널을 추가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소식과 영상 링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영락수련원이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온라인 수련’이라는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이 영적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초대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권혁일 목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영락수련원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형제 15주기 추모예배

- 제17기 ‘안수현 장학생’ 증서 수여식도 함께 열려

‘그 청년 바보의사’로 널리 알려진 고 안수현 형제(사진, 1972~2006) 15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1월 2일(토) 오후 2시 ‘CMF(한국누가회) 안수현 장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34년의 짧은 생애 동안 우리 교회 집사로서 대학부와 청년부, 의료선교부, 문화선교부 ‘예혼’팀 리더로 신앙공동체를 섬



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CMF 안수현 장학회’ 대표 간사 방선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예배에서는 김혁 목사(한국누가회)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9절 말씀을 바탕으로 ‘영원한 집’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 중에는 생전 안수현 형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 484장 ‘내

갓던 고인은 크리스천 의사(내과 전문의)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의술(醫術)을 넘어 인술(仁術)을 펼치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의 생애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 청년 바보의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매년 고인의 기일(1월 5일) 즈음인 1월 첫 번째 토요일에 동작동 국립현충원 충훈당에서 ‘CMF 안수현 장학회’ 주관으로 추모예배와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봉순 은퇴장로와 한효순 은퇴권사(아래 사진)를 비롯한 유족들과 고인의 모교인 고려대 의대 동문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를 함께 부르며 고인을 회상했고 특별순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그 청년 바보의사』를 읽고 느낀 감동을 담은 설교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추모예배를 마치고 진행된 제17기 ‘안수현 장학생’ 증서 수여식에서는 이번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최은진(충남대 의대), 강가람(원광대 의대) 학생이 소감을 밝혔으며, 지난 학기 장학생들도 함께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안수현 장학회’ 회장인 김록권 장로(전 국군의무사령관)가 장학회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장학생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그 청년 바보의사』의 인세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CMF 안수현 장학회’는 2010년 1월 9일 첫 장학생을 선발한 이래, 2021년 1학기까지 총 4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의대생 32명과 간호대생 13명에게 총 1억 9천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만남**

제공 CMF 안수현 장학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신년기도회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사진 가운데가 필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뉴노멀 시대를 뒤로하고 어김없이 새로운 태양은 밝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파스한 햇별이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발으로 담대히 전진하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 84:5)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힘과 용기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

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영락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은 저에게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던 복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으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금요기도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매주 찬양과 기도로 금요기도회를 준비할 때, 어김없이

성령님의 귀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며 기도회에서 만날 성도님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만날 말씀을 기대하게 하였고, 우리 예배에 친히 오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발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3월부터 금요기도회가 중단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공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시간들입니다. 찬양팀과 교역자들만 있는 예배당 공간은 성령님께서 애용하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예비하신 공간이었습니다.

지난 1월 4~6일 2021년 신년기도회의 저녁 찬양 인도를 맡은 자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말씀을 공유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과 교회, 가정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일이 너무 많고, 기도를 통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았기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향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중에, 어떠한 환경이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빈틈없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더욱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후 7:11)

2021년 내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우리 자신의 깨끗함이 드러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과 아픔이 도리어 기쁨과 감사의 제묵으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신중건 전도사
종로·성북교구
금요찬양팀



시어머님 기도 덕분에 봉사의 즐거움 알았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만남』을 구역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가정을 순회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집에 갔더니, 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성도님을 위로하며,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따갑고 쓰려서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삶이 매우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자녀들이 알고 계시냐고 하니 동네병원에 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신 정도가 극심해 보여서 평소 알고 지내는 정형외과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그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MRI 검사 결과 디스크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서는 형편이 어려워 선뜻 수술하겠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수술하지 못하는 성도님의 딱한 사정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교구 목사님의 기도와 몇 분의 도움으로 수술했고 성도님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외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시던 분이 이후부터는 교구 행사나 야유회에 함께 참여하여 다른 구역 식구들과도 교제하셨습니다. 남한산성 수련원 영성수련회에도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니 한 가족이 된 양 너무도 좋아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박순복 권사
성동·광진교구 28구역장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역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매달 『만남』을 들고 은퇴자분들을 방문하는 것이 구역 활동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시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 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찾아주는 이가 거의 없어 적적했다면서 마치 딸이라도 온 양 이야기보파리를 풀어놓으십니다. 이야기를 들어

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좋아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역장님 다음 달에 또 오시라”는 인사를 들으며 다음 달 만남을 기약합니다.

이처럼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봉사는 하지 않고, 개인 사업에 바쁘기도 해서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날마다 새벽기도를 다녀 오셨고, 돌아오시면 꼭 제 방 앞에 서서 뭔가 웅얼 웅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하시는지 잘 몰랐었는데, 여러 날 반복하여 듣다 보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주님의 일을 섬기는 봉사의 즐거움을 몰랐던 저는 그저 주일 성수만 하면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기도를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께서 청년부 하기봉사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권사님을 돕기 위해 저도 참여하여, 4박 5일 동안 10여 개의 지교회 중 하나인 작은 지교회의 식당 봉사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봉사였습니다. 처음 하는 봉사라서 실수도 했고, 계속되는 식사, 간식, 식사 등의 준비로 힘들었지만, 그 힘들어 오히려 너무도 큰 은혜의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하기봉사가 계기가 되어 교역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섬기게 되었고,



성동·광진교구 친교의 날에 구역식구들과 함께

서무부에서는 친교팀장으로 섬기며 목사님과 직원들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봉사했습니다. 이후 2년간 자원봉사부 담당권사로 섬기면서, 말없이 겸손히 봉사하시는 많은 봉사자처럼 저도 꾀부리지 않고 더 열심을 내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새벽기도회가 있는 주간이면, 많은 봉사자분이 매일 새벽 4시 30분까지 나오셔서 추우나 더우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교회 주변에서 차량 봉사, 주차 봉사 등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많은 분이 계시기에 성도들이 평온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런 봉사자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다른 선배 봉사자들보다 봉사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구역장으로, 담당권사로 봉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봉사처(발)에서 주신 소명 감당하는 충성된 주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봉사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남**

영락뉴스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초대 교회는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었던 진행형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어느 주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김운성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멈춤과 진행’. 영락뉴스를 맡은 작년부터 제가 매번 고민했던 단어이자 지금의 영락뉴스의 현실입니다. IT미디어부에서 만드는 영락뉴스는 2017년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3월 첫 영상을 시작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멈춤과 진행을 반복해 온 영락뉴스는 교회 내 여러 소식을 전하고 알리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

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매달 한 개의 뉴스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 제작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조직화된 시스템도 있어야 하니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각종 뉴스 미디어가 범람할 뿐 아니라 SNS가 온갖 정보와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정제된 정보와 소식을 편하고 신뢰감 있게 볼 수 있는 뉴스만의 매력은 여전히 차별화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녹화 촬영을 준비 중인 「영락뉴스」 봉사자들

뉴스 제작에 임하는 봉사자 중에는 언론·방송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봉사자도 합력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앵커, 촬영, 편집의 세 파트 중 한 파트 이상에 소속되어 협업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기획 및 제작회의를 하고, 둘째 주에 취재 및 촬영을 합니다. 셋째 주에 촬영한 영상을 종합하고 편집하여, 넷째 주에 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주보/소식/자료” 메뉴 중 하나인 “영락뉴스”에 올립니다.

이처럼 뻘뻘한 일정으로 제작하다 보니 계획 수정으로 일정에 쫓기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은혜롭게 봉사하게 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뉴스 제작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어렵사리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인터뷰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앞까지 왔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

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현장 예배를 너무 사모했는데 오늘 나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했던 이 시기를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신 목사님, 본당에서 드리는 ‘산상기도회’를 마치고 기쁜 모습으로 집으로 향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 독서행사 영상 덕분에 많은 성도가 참여했다며 감사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 창립기념음악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찬양대 대원들,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영락의 성도들이 움직이는 트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하신 김운성 목사님, 모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멈춤을 강요받는 특별한 시기에, 은혜와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교회의 여러 모습을 영락뉴스를 통해 시청하면서 성도들께서 감동하고 위로받으신다면 영락뉴스에 맡겨진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영락뉴스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중군기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진행형 영락뉴스”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 **봉사문의** : IT미디어부 02-2280-0244



류중혁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IT미디어부 영상팀장

첫 시간을 드리는 믿음 훈련은 가정에서

최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신앙의 대물림’이다. 우리 영락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자’라는 내용의 표어를 걸고 사역과 기도를 이어왔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가정 예배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원 포인트 예배를 통해 동일 성경 주제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정에서도 나누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 내 신앙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적 모임들이 많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타인과의 거리 두기’가 필수인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신앙생활 역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들이 많아졌다. 자녀들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각각 소속 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라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예배 태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해진 시대를 비로소 맞이한 것이다.

어느덧 성인이 된 두 딸을 키우면서 내가 가장 힘썼던 것은 ‘믿음의 훈련’이었다. 말씀 ‘선포’가 교역자의 사명이라면,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장 귀한 첫

것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려고 아이들이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주중에 샀더라도, 주일에 처음으로 입고 신도록 했다. 새것을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라는 뜻에서였다. 하루라도 일찍 입고 싶은 아이들은 “하나님은 제가 산 거 이미 아시고 보고 계실 텐데요 뭐”라며 빼죽거리는 아이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지만, 예배를 통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아이들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물질 외의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길 바랐다. 늦게 잠든 아이들을 새벽에 깨우는 것은 사실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흔들려 깨워 새벽기도에 데리고 나갔다. 가끔 남편이 오를만 애들을 계속 자게 하자고 할 때는 나도 마음이 약해져 곤히 잠든 딸들을 그냥 재운 적도 자주 있었지만, 웬만하면 성령께 도움을 받으며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을 깨웠다. 지금 돌아보아도 이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다. 그러나 훈련하여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아파하면서도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

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지요 마음에 다잡았다.

고요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응답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훈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김운성 목사님 말씀처럼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졸린 눈을 억지로 비비며 따라나섰던 딸들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청년으로 자랐다. 이제는 내가 깜박하고 늦잠을 자는 날에도 아빠와 셋이 새벽 첫 예배를 드린다.

가정 내 신앙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말이 쉽지, 늘 어려운 숙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교육은 설득력이 없다. 내가 먼저 보여주어야 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애썼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습관들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자신이 없다. 아이들을 새벽기도에 데리고 가기 위해 30분 더 일찍 일어났고, 주님과 소통 시간을 중시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쓰며 기도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던 중 아이들이 간혹 방금 부른 절을 까먹고 또 부르면 멈추게 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문인데, 곡조에 심취해 찬양이 아닌 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멜로디 없이 가사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다시 읽게 시켰다. 예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렇게 하려면 나부터가 예배에 누구보다도 집중해야 했다. 말씀을 경청

하는 태도와 삶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행 일치의 노력을 해야만 했다.

참 어려웠고, 사실 지금도 어렵다. 앞으로도 끝없이 순간마다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아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돌아온 탕자’의 형인 큰아들이 될까 두렵다. 돌아온 동생과 그를 보며 기뻐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될까 봐... 탕자인 동생은 회심의 기회라도 있었지만, 별문제 없게 보였던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진짜 믿음과 사랑 없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다니며 회심의 기회도 없이 살아가게 될까 두렵다.

신앙의 모범은 철저히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인의 태도가 아닌, 두 렵돈 가진 과부의 헌금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일상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너무 기쁜 일에 들뜨지도 않고 또 슬픈 일에 좌절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부모를 볼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신앙의 대물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국가의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 **만남**



양혜경 권사
노원교구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윤남이 성도 _ 서대문·은평교구

크리스천은 누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신만의 광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저만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있는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고난에 처해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내려간 듯 느껴졌습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고난이라고만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생각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고난의 시기에 저를 더 단단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직장상 당면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성장케 하는 고난이자 기회라고 믿습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난 전과 후의 저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닦혔을 때 바닥에 내려간 것 같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니 제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직장상 편안한 삶은 제가 누리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제가 분에 넘치게 누리

고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자신에게 혹여 불이익이 있을까 등을 돌렸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제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했던 교회 봉사와 하나님의 일을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영락교회 집사님의 권유를 통해 저도 교사에 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실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직장을 쉬지 않았다면 저는 직장 중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한 채 교사교육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어도 수료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사교육을 신청하고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으며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던 저에게 매주 강의는 부담이 아니라 흥미로워서 찾아서라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한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 강의가 이론적 내용으로만 들리지 않아 제 삶에 적용하며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월부터 시작한 14주간의 교사교육 모든 과정을 완수했습니다.



2020년도 교사교육 수료자들을 대표해서 간증하고 있는 필자
(작년 11월 22일 찬양예배)

하나님께서서는 저를 훈련하시면서 고난상황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공익신고 이후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저는 직장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워서 진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바위에 계란 치는 격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한 걸음씩 인도해주셨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알게 하셔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 기관의 조사심사를 통해 저는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저는 징계위기와 직장을 쉬어야 했던 상황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은 조사심사를 통해 징계 등 모든 불이익을 취소하라고 제 직장에 명령했고, 이에 더해서 성과급을 더 높게 받았어야 했으므로 그 차액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고 나아가니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고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직 더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 제가 교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여건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부족한 저로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 걱정스러운 마음과 설레는 기대감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은 내려놓고 나아가려 합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저 역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저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완전히 최종 승리한 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수난곡(Passion)과 찬송 ‘오 거룩하신 주님’

교회력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달력과 좀 다르다. 절기로 구성된 교회력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하여 성탄절, 동방박사의 경배를 기념하는 현현절(1월 6일), 그리고 사순절로 이어진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으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것에 동참하는 의미로 회개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다.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하는 사순절의 첫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 한다. 이날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이마에 재를 바르며 십자가를 그리는 행사가 기독교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필자도 미국교회를 섬길 때 매년 ‘재의 수요일’에 교인들이 모여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쪽지에 적은 후에 그것을 태운 재를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했다.

사순절 기간에 연주되는 곡으로는 수난곡(Passion)이 있다. 수난곡이란 신약성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사건을 다룬 음악 형식이다. 수난곡의 역사를 살펴보면 4세기경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어떤 성지순례자가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수난에 관한 내용을 암송한 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전해지며, 13세기까지



는 한 사람이 노래하다가 14, 15세기에 몇 명의 성악가가 등장인물을 나누어 단선율을 노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합창음악인 수난곡은 15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단지 군중의 소리로서 합창이 쓰였지만 약 1540년경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합창이 쓰이기 시작했다.

수난곡에는 ‘복음사가’(Evangelist)가 등장한다. 성경의 내용을 해설하는 사람, 즉 수난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빌라도, 가롯 유다 등이 등장한다. 이 밖에도 닭이 울기 전 베드로에게 질문하던 여종이나 빌라도의 아내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독일 루터교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일반 칸타타를 예배 시간에 연주하지 않는 대신에 수난곡을 작곡하여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에 연주했다. 개신교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자 바흐(J. S. Bach, 1658~1750)는 다섯 곡의 수난곡을 작곡했으나 현재는 마태, 마가, 요한수난곡만 남아있는데, 그중 마태수난곡과 요한수난곡이 지금까지도 많이 연주되고 있다.

「마태수난곡」은 마태복음 26, 2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난에 관한 141절을 기본 대사로 하며, 여기에 신앙적인 고백, 참회, 찬미, 기도의

노래인 독창, 코랄(Passion Chorale) 합창 27곡을 더하여 이루어진 3시간가량의 방대한 음악이다. 마태수난곡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이 다섯 번이나 등장한다. 이 찬송은 원래 독일의 작곡가 하슬러(Hans Leo Hassler, 1564~1612)가 1601년 작곡한 세속 곡인데, 바흐는 이 곡조를 너무나 사랑하여 마태수난곡에서 다섯 차례나 편곡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찬송곡조의 제목도 코랄이라고 붙여졌다. 이 찬송은 가사가 매우 은혜롭다. 20여 년 전인 2000년 갈보리 찬양대가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연주했을 때, 총독의 병사들이 “가시관을 얹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마 27:29~30)를 복음사가가 노래한 후 찬양대가 코랄을 아래의 가사로 연주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싸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당시 이 노래를 부르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이 눈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올해 2월 17일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사는 중세의 수도사였던 베나드(Bernard of Clairvaux, 1091~1153)가 세상을 떠났던 1153년에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 관해 시로 쓴 것을 독일 루터교회의 파울 게하르트(1607~1677) 목사가 독일어로 번역했고, 미국 장로교회 제임스 알렉산더(1804~1859) 목사가 1830년 영어로 번역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이 찬송이 <새 찬송가> 164장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난곡은 마태, 마가, 누가, 요

한수난곡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수난곡의 성격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체포를 위한 책략이나, 옥함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여인, 최후의 만찬 등 보다 자세히 예수님의 수난을 그리고 있는 것에 반해, 요한복음(18, 19장)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락교회 초대 지휘자였던 박재훈 목사님은 1922년생으로 우리 나이 100세이시다. 그런 고령에도 최근 「요한수난곡」을 완성하셨다. 이 역사적인 곡을 영락교회 찬양대가 연주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연주하지 못하지만 2022년 부활절 음악회에서는 반드시 연주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요한복음 18과 19장의 82절 모든 말씀을 가사로 포함하고, 중간에 아리아나 코랄 가사를 삽입하면 음악회가 두 시간은 족히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저녁 찬양예배 시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길지 않으면서도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올해 수난절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끝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 복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빛 색깔 공기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제목만으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추측하기 어려운 이 책의 부제는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입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저자는 어느 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신 아버지의 암 선고를 듣습니다. 이후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병상대화록인 것이지요. 특이한 것은 조직신학자임에도 죽음과 부활에 관한 통찰을 차가운 머리로 이성적, 논리적으로만 전개하지 않고 실존적인 입장에서 풀어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결한 신앙으로 죽음을 미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는 어느 노목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책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은 삶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임에도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권말에는 저자의 아버지 김치영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은 후 작성한 설교가 실려 있는데 심지어 본인의 장례식 설교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실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는 진지한 설교인 셈이지요.



김동권 지음 / 대한기독교서회 / 320쪽

이 책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까닭은 제가 전도사 시절, 저의 아버지 또한 갑작스레 암 선고를 받고 암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낫기를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순응의 마음으로 주님께 가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어느 것이 참된 믿음일까.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일까. 지금은 흐릿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지적인 호기심으로서가 아니라, 실존적인 자세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의 주제로,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책은 죽음이라는 실존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리하여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미술관에서 터너의 작품을 관람하던 저자의 아버지는 저자에게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 그림 한번 봐! 터너는 공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야. 공

기의 빛깔. 네 눈에는 하늘과 땅만 보이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지? 사람들은 공기를 잊었고 공기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 이 공기에 빛이 부딪히자 공기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어. 터너는 이것을 색깔로 표현한 것이지. 내가 터너를 위대하게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야.”

어두움은 결단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혹여 어두움의 날들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모든 것이 무채색의 의미 없는 날들

을 보내신다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의 편린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올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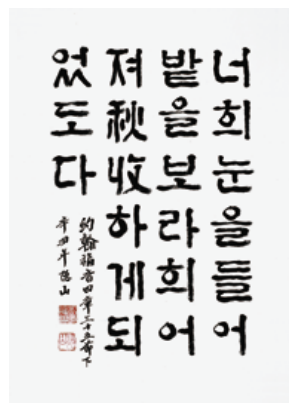
박지운 목사
고양·파주교구
전도부

영락화랑 _ 작가노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묵상과 기도로 힘든 한 해를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마다 가슴 속 작은 소망의 빛을 끌어안은 채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넓은 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을 묵상합니다.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된, 세상 밭에 나아가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쏟으며 헌신으로 기쁨의 땀을 흘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한 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힘차게 달려 나갑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가슴에 소망의 빛을 품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 때, 세상 밭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밭자국들을 남기고, 더욱 밝고 아름답게 추수될 것이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만남**



2021년 신임교역자 프로필

부서 지도 목사



홍지연

영·유아·유치부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영어학
방주교회 준전임(영유아부)

전도사



김재훈

강남교구
목양부(구역공과)
장신대 기독교교육
새문안교회 교육(초등)



장민희

새가족부
서울신대 신학
영락교회 교육(북한선교)



남경식

중구·용산교구
전도부
장신대 교회음악
성광교회 교육(청소년)



김민석

성동·광진교구
IT미디어부
영남대 관현악
안산제일교회 준전임(청소년)



전재량

마포·영등포교구
베드로부
충북대 전기공학
영락교회 교육(고등)



윤연상

북한선교부
영남신대 사회복지
영광교회 교육(초등)



권영현

서대문·은평교구
선교(해외, 학원)
한일장신대 신학
온누리교회 교육(고등)



김예성

동대문·종로교구
목회행정
중앙대 영어영문
효성영광교회 교육(유년)



박성민

성남·분당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장신대 신학
소망교회 교육(유아)



곽영진

고양·파주교구
중등부
장신대 신학
영락교회 교육(중등)

2021년 목회 분담표(목사)



백성우 목사
교육 전담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



김태군 목사
13교구(서초)
경조부



박재현 목사
1교구(강남)
목회행정



황광용 목사
9교구(마포·영등포)
목양부, 권사회



차동혁 목사
선교 전담
선교부(국내, 해외), 1남/1여



최승도 목사
4교구(중구·용산)
제자양육훈련부 총괄
한경직기념사업회, 역사위원회



김정희 목사
15교구(성남·분당)
예배위원회, 음악부
안수집사회



박지운 목사
16교구(고양·파주)
전도부 총괄, 호산나



최현운 목사
6교구(강서·구로·양천)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 할렐루야



박성은 목사
7교구(서대문·은평)
선교부(군선교, 문화)
2남/2여, 임마누엘



김충섭 목사
2교구(강동·송파)
제자양육훈련부, 베들레헴



남정열 목사
10교구(종로·성북)
IT미디어부, 홍보출판부



권혁일 목사
5교구(관악·동작·금천)
영성,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갈릴리



김형찬 목사
18교구(용인·화성)
새가족부, 베다니



조두형 목사
8교구(동대문·중랑)
선교부(농어촌, 의료, 청년, 부부)
3남/3여



전병주 목사
11교구(노원)
사회봉사부, 친교부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



노대웅 목사
고등부
학원선교



최재선 목사
청년부
자원봉사부



강승훈 목사
12교구(강북·도봉)
상담부, 가정사역, 시온



탁현수 목사
3교구(성동·광진)
대학부,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김진우 목사
17교구(안양·수원)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4부예배



이후림 목사
14교구(인천)
전도부(주중사역)
4남/4여, 갈보리



이영호 목사
중등부



신주현 목사
아동부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



김윤기 목사
국제예배부



황재영 목사
영락기도원



신대군 목사
영락수련원



박상엽 목사
설악수양관

2021년 제직부서 부장(장로)·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당회



서기 김순미



부서기 김영철

선교부



부장 심재수



이원상



손동호



신승기

북한선교부



부장 서상현



박상언



문영환



김무섭

의료선교부



부장 김경오



박도준



조병준

사회봉사부



부장 이홍노



이진하



유형창



육교수

교육부



부장 정천우



황찬국



김주현



김정훈



윤창완

목양부



부장 지동춘



강명옥



임영환



김철승

전도부



부장 조용철



임성기



한봉수



장세경



이두희

제자양육지원부



부장 임재광



전태성



김원식



황규도

새가족부



부장 김명옥



김종범



장덕권



조광래

음악부



부장 김성환



변계환



이태성



정일천

친교부



부장 김호섭



조민태



정혜현



정효선

※ ____ 는 유임

2021 제직부서 부장(장로)·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상
담
부

부장 현정임



박효진



매재원



이승석

경
조
부

부장 이석호



박상수



양동철

홍
보
출
판
부

부장 양지청



현재호



이민하

IT
미
디
어
부

부장 차남수



김호진



송건의



최현우



한요셉

재
정
부

부장 양성호



김병욱



박봉수



이영진

시
설
관
리
부

부장 이용희



김은형



이은준

자원봉사부



부장 김종태



최충권



양승관



안칠



이재학



최익준

사무부



부장 최경식



권용호



신이철



정일형

예산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김광식



이인수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하진



박형화



김향길



윤익성

행정처



행정처장 이종근

기도원



기도원장 윤재기

※ ____ 는 유임

교회소식

news letter

눈을 들어 받을 보라! 신년예배와 신년기도회 열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2021년이 시작된 가운데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신년예배와 신년기도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열렸다.

1월 1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중계된 신년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로마서 8:12~17을 본문 삼아 '아버지'라는 제목의 신년 설교를 통해 "2021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해가 되자"고 전했다.

이날 신년예배에서는 올 한 해 제직과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봉사자를 임명하는 임직식이 있었다. 임직식에서는 권사 1,905명(신임 86명), 남집사 2,294명(신임 65명), 여집사 2,410명(신임 77명), 구역장 1,140명, 구역권찰 1,195명, 교회학교 교사 880명, 음악부 찬양대원 1,105명이 임명을 받았다.

한편 새로운 영적 에너지 충전을 위한 신년기도회가 '눈을 들어 받을 보라(요4:35)'는 주제로 1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열렸다. 신년예배와 같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이번 기도회는 첫날 저녁집회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하루 세 차례(새벽: 오전 6시, 낮: 오전 10시 30분, 저녁: 오후 7시)씩 말씀과 기도의 향연이 펼쳐졌다. 성도들은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선교 현장, 한국 교회와 영락교회,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간구했다.

취재 이재항·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2020년도 은퇴식 열려

2020년도 은퇴식이 작년 마지막 주일이었던 12월 27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은퇴식에서는 오랜 기간 충성된 청지기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장로 5명, 안수집사 7명, 권사 118명, 남집사 76명, 여집사 45명이 교회법(직분 정년 70세)에 따라 직분에서 은퇴했다. 은퇴식 인도를 맡은 당회장 김운성 위임목사는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며 은퇴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법에 따라 정년을 맞은 은퇴자들이 교회 직분에서 은퇴하게 됨을 선포한 후 공로패와 감사장을 증정했다. 은퇴자들을 대표해서 이창민 장로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영락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며 은퇴 소감을 밝혔다.

취재 이재항 기자

2월 목회력

6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7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4일(주일)	제직회, 제직부흥회 1차
17일(수)	재의 수요일
20일(토)	상담부 공개강좌(상반기)
21일(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제직부흥회 2차, 심방준비회
22일(월)~27일(토)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28일(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 2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종오 장로 별세, 1월 9일 교회장



이종오 장로가 지난 1월 6일(수)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1951년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2008년 12월 본 교회 38회 안수집사로 임직 후 음악부 차장, 토요일음악회 부감, 1남선교회 총무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12월 44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후에는 임마누엘찬양대 대장(2017~2018), 음악부장(2019~2020)을 맡아 헌신적으로 교회공동체를 섬겼다.

1월 9일(토)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교회장으로 엄수된 장례예식에서 집례를 맡은 김운성 위임목사는 '이제 후를 위하여' (딤후 4:6~8)라는 설교를 통해 "장로님은 시무장로 은퇴를 불과 1년 남기고 아쉽게 천국으로 가셨지만 평소 천국에서의 일을 준비하며 완성된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게 됐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장례예식을 마친 후 장자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최승도 목사(중구·용산교구) 집례로 하관예식이 진행되었다. 유족으로 부인 김귀선 권사와 2남을 두었다.

편집장 레터

작은 버들강아지 위에 쌓인 눈이 포근하다.
눈의 무게도 은혜의 무게 못지 않게 무거워
서, 송이송이 내려 쌓인 눈꽃의 무게를 견디
다 못해 축 처진 듯 하다. 하지만 햇살 자락에
눈꽃은 어느덧 사라지고 꽃꽂이 몸을 일으키
며 봄을 알릴 시간이 멀지 않다.

2월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있는 달이어서,
이번 호는 졸업과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다
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한 특집
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마냥 희망과 기대에 부푼 발걸음을 내
디딜 수 만은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에,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겨우내 얼음장이 완전히
계곡을 덮어버려도
그 얼음 밑으로
계곡물은 계속
흐르듯, 코로나19가
모든 걸 덮어버렸어도

우리 교회의 사역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
다. 청년부, 대학부, 남선교회, 여전도회 리더
들을 통해 올해 각 단체의 계획을 들어보니
다. 교역자 사역분담표, 새로 부임한 교역자
들, 제직부서 신임부차장단 소식 등 만남 2월
호는 2021년의 새출발호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만남지를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호는 사
순절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장 김기선



2021년 2월호 통권 564호

발 행 2021. 2.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양지청

편집위원 김기선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교 열 이광미 계영희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포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 자 인 design D.I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낱말풀이



2021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 목사 □: 전도사 ●: 파트목사 ◎: 준전임 전도사 ○: 파트전도사

예배	예배위원회	■ 김정희 ■ 김진우(4부)	■ 권혁일(기도) □ 신중건(4부)	□ 이효준	□ 최정규(기도)
	음악부	■ 김정희	□ 김재훈(한마음찬양반)		
	금요찬양팀	□ 신중건	□ 노진석	국제예배	■ 김윤기 ◎ 최성은 ○ 최재령
교육	교육부	■ 백성우	□ 임민국	사랑부	● 진영채 ○ 이창근
	영·유아·유치부	■ 홍지연 ○ 강베나(유치부)	◎ 유엘리사(유아부) ○ 김영한(유아부)	◎ 서유리(영아부) ○ 이사라(영아부)	
	아동부(CebC)	■ 신주현(소년부) ◎ 최재령(CebC)	◎ 김요한(초등부) ○ 김하영(초등부)	◎ 하종찬(유년부) ○ 윤화평(소년부)	○ 노다은(유년부)
	중등부	■ 이영호	□ 광영진	◎ 황하은	○ 강하림
	고등부	■ 노대웅	□ 백현준	◎ 정창대	○ 김진재
	대학부(베드로부)	■ 탁현수	□ 박성율	□ 전재량	◎ 전찬욱 ◎ 이성재
	청년부	■ 최재선	□ 임민국	□ 김성광	◎ 김상민 ○ 최대환
	교회교육원	■ 백성우	◎ 지기원	교사교육부	■ 백성우 ◎ 지기원
	목양부	■ 황광용	■ 김진우	□ 조익천	□ 김재훈
교구목양	제자양육훈련부	■ 최승도	■ 김충섭	■ 탁현수(소그룹)	□ 박성민(소그룹)
	새가족부	■ 김형찬	□ 장민희		
	전도부	■ 박지운	■ 이후림(주중사역)	□ 남경식	□ 김민석(주중사역)
	경조부	■ 김태균		친교부	■ 전병주
	평생대학	■ 전병주	□ 신중건	상담부	■ 강승훈 □ 이형진 ◎ 이영미
	영락기도원	■ 황재영		설악산수양관	■ 박상엽
	영락수련원	■ 권혁일	■ 신대균	□ 윤형배	
선교	선교부	■ 차동혁(국내, 해외) □ 김우람	■ 박성은(군선교) □ 권영현(해외, 학원)	■ 조두형(농어촌, 부부, 청년) □ 전재량(미디어)	
	의료선교부	■ 조두형		문화선교	■ 박성은 □ 유태완
	북한선교부	■ 최한운	□ 윤연상	◎ 구요섭	○ 김세훈
	학원선교	■ 노대웅			
	1남선교회 1여전도회	■ 차동혁		3남선교회 3여전도회	■ 조두형
	2남선교회 2여전도회	■ 박성은		4남선교회 4여전도회	■ 이후림
	안수집사회	■ 김정희		권사회	■ 황광용
사회	사회봉사부	■ 전병주	□ 유태완		
목회행정	목회행정	■ 박재현	□ 김예성	IT미디어부	■ 남정열 □ 현성인 □ 김민석
	자원봉사부	■ 최재선		홍보출판부	■ 남정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역사위원회	■ 최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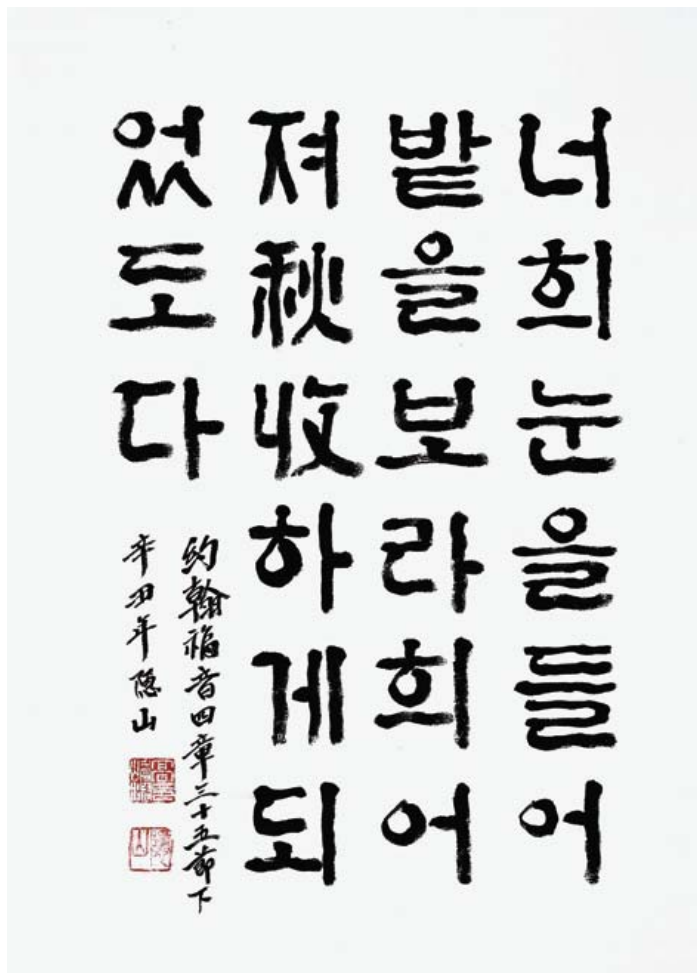
교구(목사&전도사)

1교구/ 강남	■ 박재현 □ 김재훈	10교구/ 종로·성북	■ 남정열 □ 신중건
2교구/ 강동·송파	■ 김충섭 □ 이효준	11교구/ 노원	■ 전병주 □ 백현준
3교구/ 성동·광진	■ 탁현수 □ 김민석	12교구/ 강북·도봉	■ 강승훈 □ 노진석
4교구/ 중구·용산	■ 최승도 □ 남경식	13교구/ 서초	■ 김태균 □ 조익천
5교구/ 관악·동작·금천	■ 권혁일 □ 김성광	14교구/ 인천	■ 이후림 □ 윤형배
6교구/ 강서·구로·양천	■ 최한운 □ 이형진	15교구/ 성남·분당	■ 김정희 □ 박성민
7교구/ 서대문·은평	■ 박성은 □ 권영현	16교구/ 고양·파주	■ 박지운 □ 광영진
8교구/ 동대문·중랑	■ 조두형 □ 김예성	17교구/ 안양·수원	■ 김진우 □ 최정규
9교구/ 마포·영등포	■ 황광용 □ 전재량	18교구/ 용인·화성	■ 김형찬 □ 유태완

음악부

임마누엘찬양대	■ 박성은	갈릴리찬양대	■ 권혁일
갈보리찬양대	■ 이후림	할렐루야찬양대	■ 최한운
시온찬양대	■ 강승훈	베다니찬양대	■ 김형찬
호산나찬양대	■ 박지운	교회음악아카데미	■ 김정희
베들레헴찬양대	■ 김충섭		

눈을 들어 받을 보라



고윤숙, 48×60cm, 2020년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